

기획조사 06-077

# 최근 북중관계 조망

- 경제적 관점에서 본 중국의 대북위협론 해부 -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목 차

I	조사배경	-----1
	1. 중국에 의한 대북 경제 위협론 분석	
	2. 발전적인 한중관계 정립과 위협론	
II	중국 위협론의 실체와 대두 배경 및 원인	----3
	1. 위협론의 형태	
	2. 대두 배경 및 원인	
III	중국의 대북 위협론에 대한 실체 논의	-----12
	1. 배경과 원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 및 오해	
	2. 시기적인 문제와 진행과정 확인 미흡	
	3. 심리적인 요인	
IV	결론 - 경제적 관점에서 본 위협론	-----20

## I. 조사배경

### 1. 중국에 의한 대북 경제 위협론 분석

#### □ 중국에 의한 대북 경제 위협론 발생 원인 조사

- 중국은 북한의 맹방이라는 기존의 인식과는 맞지 않는 중국에 의한 대북 경제 위협론의 발생원인과 배경 조명
  - 순망치한으로 표현되는 양국간의 친밀한 관계가 어떻게 위협론으로 인식될 만큼 변했으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북중관계가 실제 북중경제관계와 일치하는가 여부에 대한 숙고
  - 경제적 관점에서 위협론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
- 북중간에 발생한 위협론이 한중간의 위협론으로 변질되는 과정과 원인에 대한 고찰

#### □ 경쟁국과의 비교를 통해 위협론의 타당성 검증

- 북한과 교역하는 국가들간의 대북한 무역, 투자의 점유비중을 통해 실제 위협으로 볼수 있는지? 볼수 있다면 그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조사

### 2. 발전적인 한중관계 정립과 위협론

#### □ 위협론이 한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

- 위협론의 발생원인과 그것이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북중관계에서 시작된 위협론이 한중관계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야기된 부정적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 실제적인 사례 발굴을 통해 현황 조사

○ 위협론을 둘러싼 한중관계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 북한 핵위기 해결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재건과 관련된 현안사항 논의에 있어서도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므로 원인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한중관계 정립을 위한 발전적 대안을 모색

□ 북중간의 최근 현상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가능한 지 여부 파악

○ 경제적 밀착도 증가가 꼭 위협론이 되어야 하는 것이 북한이라서 그런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 제기

- 일본과 중국이라는 거대 경제권이 한국에 기회가 되듯이 동북지역의 경제발전이 왜 북한에게는 위협론의 원인중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 윈윈의 관점에서 북중관계를 볼 여지는 없는가에 대해 논의의 장 마련

- 예를 들어 현재 실제 일어나고 있는 철광석등 기초재료의 중국으로의 수출증대와 철강제품에 대한 북한으로의 유입이 저부가가치 제품의 수출과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입이라는 전형적인 불평등 거래의 형태를 띄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현재 북한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재해석

## Ⅱ. 중국 위협론의 실체와 대두 배경 및 원인

### 1. 위협론의 형태

#### □ 첫 번째 - 북한의 중국 동북 4성론

- 경제적 의존도 증가가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중국정부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만큼 중국적으로는 북한이 중국동북의 4번째 성이 될 것이라는 우려
  - 현재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50%이상이고 -내국간 거래로 간주되고 있는 남북한 무역을 포함시킬 경우 38% 수준- 투자의 경우도 금액기준 70%정도라는 결과가 가장 설득력 있는 위협론의 배경이 되고 있음
- 역사문제인 동북공정도 동북 4성론의 이론적인 뒷받침을 이루면서 확산에 일조

#### □ 두 번째 - 중국의 대북한 경제선점론

- 북한의 예상치 못한 사태를 가정한 시나리오
  - 북한이 정치 경제적인 어려움속에서 예상치 못한 사태에 빠질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하여 중국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분야들을 미리 선점할 것이라는 전망
  - 북한 경제의 발전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급상승할것으로 예상되는 자원 분야에 대한 소유권 미리 확보
- 동북진흥과 연계, 지하자원이 풍부한 북한을 자원공급국으로 이용
  - 동북진흥정책 실시 이후 연 8%이상씩의 성장을 보이는 동북지역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원으로 북한자원 사전 확보
  - 북한이 자원공급과 최종소비재의 판매지라는 식민지경제로까지 논의 확대

## 2. 대두 배경 및 원인

### 가. 대두배경

#### □ 북-중관계 및 주변 환경의 변화

##### ○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 북한정권의 취약성으로 예상치 못한 사태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심심찮게 제기됨에 따라 중국의 대북정책이 조금씩 바뀌고 있으며, 이것이 북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증가
- 이에 따라 중국이 자국의 이익확보를 위해 모종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음

##### ○ 중국의 대북영향력이 지나치게 비대칭적으로 증대

- 최근의 북중관계에서 보듯이 북한에 영향을 행사할수 있는 국가가 한정되어 있고, 이 중 중국이 가장 큰 영향력 행사

##### ○ 북한의 내부 사정

- 내치와 외정실패로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도 붕괴된 북한 정권책임자의 정책 실패
- 김정일의 방중과 이에 따른 2002년 7.1조치등 개방의 전조로 볼수있는 변화조짐이 나타났기는 하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로 오히려 이해 당사국들의 불안감이 증대되는 현상 발생

#### □ 북중문제를 한중문제로 보는 우리 국민의 인식 변화

- 엄격히 말해 경제적 의존도 증가나 중국기업들의 대북투자증가등 위협론의 근원이 되는 사건은 북-중간의 문제로 당장 한국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직접적 위협론의 주체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현재의 대북위협이 통일을 전제로 향후 한국에 대한 위협으로 될 것이라는 우리의 인식전환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임
- 이런 인식이 [대북위협론 = 한국위협론]으로 무의식적으로 받아 들이는 배경이 되고 있음

#### 나. 주요 대두 원인

##### □ 식량 및 에너지 지원으로 인한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강화

-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외부에 의존
  - 국가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식량 및 에너지를 중국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상황
  - 90년말 이전에는 약 15~20만톤의 식량을 지원받았으나 90년대말 이후부터 매년 약 50만톤의 식량, 100만톤의 석유, 250만톤의 석탄등을 원조받고 있음.<sup>1)</sup> 실제 2004년 54만톤, 2005년에는 55.6만톤의 식량이 지원
- 식량과 에너지의 대중 원조의존도가 높아감에 따라 북한의 대중 발언력 크게 약화
  - 북한의 년 곡물생산량이 대략 450만톤, 전체 소요량이 약 550만톤, 매년 약 100만톤 가량이 부족한 것을 감안해 볼때 50만톤 지원은 북한정권의 유지에 적지 않는 기여
  - 에너지의 70%, 특히 원유의 경우 90%를 유.무상 지원받고 있음.

1) 싱가포르 [연합조사] 2000년6월 11일자

2000년 단동세관을 통해 지원된 대북 물자리스트<sup>2)</sup>

품목	수량	품목	수량
쌀	10만톤	수송차량	500대
원목	10만입방미터	홍기승용차(귀비용)	20대
원유	30만톤	컴퓨터	200대
대두	1.2만톤	식용유	20만톤
석탄	18만톤	각종공업기계	200대
시멘트	1만톤	돼지(산 것)	5,000두
에어컨	1000대	소(농업용, 산 것)	2,000두
맥주	2,000박스		

\* 자료원: china.com

□ 중국의 대북한 투자 증가로 북한경제자원 선점에 대한 우려 점증

○ 중국의 대북투자 70%가 2002년 이후 실행

- 1984년을 합영법 공포이후 북한외자유치 시작했지만, 중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는 1995년까지 3건에 불과
- 이에 반해 2002년부터는 매년 4, 5건씩 급속히 상승, 2004년까지 17건이나 증가. 이는 1991년 이후 중국 상무부에 신고된 대북투자 25건의 70%를 점유하는 수치로 이런 급작스런 대북투자 증가가 불안감 야기

연도별 중국의 대북 투자현황<sup>3)</sup>

(단위: 개사, 미\$천, %)

연도	기업수	투자액	점유율
1990년 이전	2	790	4.2
1991	1	47.8	0.3

2) 동자료는 china.com에서 발취한 자료로 china.com도 명확한 출처는 밝히고 있지 않음. 동 자료는 단동세관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품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 지원품목으로 볼수 없고, 확인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 다소 신빙성은 떨어질수 있으나 중국의 대북지원의 상황을 판단할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참고할 필요가 있음.

3) 본 통계는 중국 상무부 신고 기준이기 때문에 신고를 거치지 않은 투자 금액까지 합하면 투자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됨.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인사에 따르면, 2004년도 중국의 대북한 투자는 5,000만불에 달하며, 북한 전체 투자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함. (KOTRA 베이징 무역관) 또한 본 통계는 실행액 기준인 바, 현재 중국의 대북 투자 급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투자 협정액을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됨.

1992	0	0	0
1993	0	0	0
1994	1	270	1.5
1995	0	0	0
1996	0	0	0
1997	0	0	0
1998	1	160	0.9
1999	1	610	3.3
2000	0	0	0
2001	2	2,600	14.0
2002	4	1,503	8.1
2003	5	3,526	19.1
2004	8	8,998.8	48.6
합계	25	18,505.6	100

\* 자료원 : 중국대외경제무역연감, 중국상무연감 각년호

□ 광물등 자원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 투자항목의 상당부분이 자원분야에 집중

- 총 24건중 7건으로 건수는 적으나 투자금액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대단위 투자가 철광, 동광, 몰리브덴등 북한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광산물이거나 희귀광물에 투자됨

○ 북한을 건전한 파트너로서보다는 자원공급국으로서 인식

- 동북지역 경제발전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원재료 공급기지로서 북한을 인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 제기

대중투자항목 분석

업종구분	건수	업종구분	건수
IT전자	1	기계	2
광산	7	산업재	2
인프라	3	유통	3
소비재	4	에너지	1

\* 자료원 ; 코트라 해외무역관 보고자료 취합

□ 전략적 가치가 높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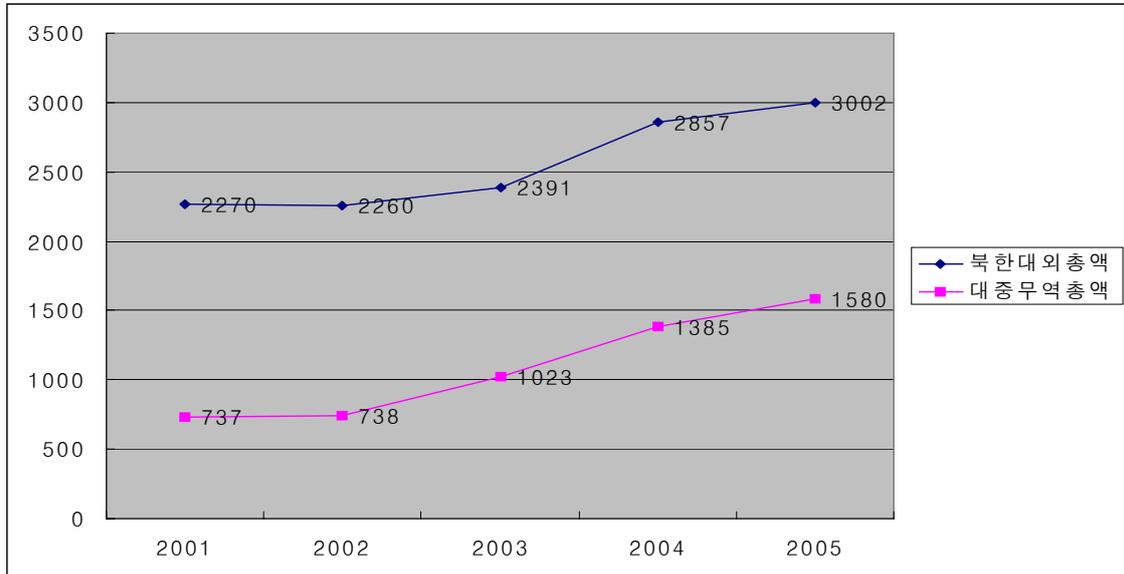
- 중국은 북한이 인프라 부분에 투자 허가한 유일한 나라
  - 중국만이 유일하게 북한 인프라 분야에 3건 투자
  - 2건은 별의미 없으나 상당한 良港으로 평가받고 있는 나진항 50년 임차는 파격적인 것으로 평가할수 있음
- 나진항 임차는 동북의 대체항구로서 북한의 경제의존도 고도화 우려
  - 동북지역의 대표적 항구인 대련항이 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그 인근항들의 처리물량 포화로 신속한 대체항구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상태에 있음
  - UNDP계획에서 보듯 중국은 10여년전부터 나진항을 통한 태평양으로의 직접적인 출루 확보를 노력중이었는데, 이번에 성사됨으로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시킬수 있는 기반 마련

□ 북한의 대외무역증가와 비례하는 중국의 대북무역 점유율 증가

-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빠른 속도로 증가
  - 동구 공산권의 체제변환이후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이 되어왔던 중국의 대북무역액이 점유율에서 최대를 기록, 2005년의 경우 절반 초과
  - 2004년 48.5%에서 2005년에는 52.6%까지 증가하여 내국간 거래로 간주되는 남북교역을 제외할 경우 비대칭적인 무역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국내외적인 환경 영향으로 이런 추세 앞으로도 지속 및 확대 전망

## 북한의 대외무역과 대중무역과의 상관관계

(단위: US백만불)



(자료원 : KOTRA 2005년 북한대외무역동향)

\*표 설명 :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총액과 북한의 대중무역총액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 이는 북한의 대외무역총액 증가분의 상당부분이 대중무역의 증가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함.

### □ 중국의 동북진흥<sup>4)</sup>은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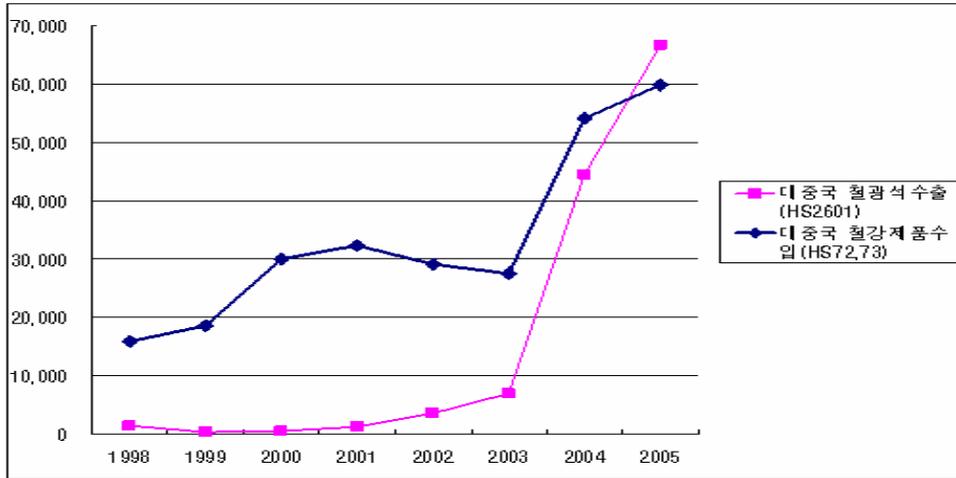
- 동북경제 재건계획, 대북투자증가와 더불어 민감한 시기에 대두함으로써 위협론의 원인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음

4) 동북진흥은 만주국시대부터 1980년대초 중국의 개혁개방이 본격화되기 전인 계획경제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공화국의 만아들” 또는 “중국 중공업의 요람”으로 불리며, 주목을 받아 왔던 동북지역이 개혁개방이후부터는 심천등 경제특구가 몰려있는 남방지역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떨어져 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서 나온 경제진흥책임. 동북 3성지역은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만주국시대부터 중국본토공격을 위한 중화학기지로 육성된 전례가 있는데다 해방후 구소련이 중국에 제공한 중공업시설의 70%가 투자되어 있어 중국전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높았으나 개혁개방이후 중앙정부의 남방에 대한 비대칭적인 투자로 인해 현재는 서부지역과 함께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음. 서부대개발 사업이 1999년부터 시작되자 동북지역에서도 같은 요구가 중앙정부에 빚발쳤고, 중앙정부는 2002년 11월, 공산당 제 16대 전국 대표대회 개최때 이 문제를 제기,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했으며, 2004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동북진흥 정책을 추진함. 주요내용을 보면 노공업기지로 불리우고 있는 동북지역의 기간산업을 활성화시켜 현재 중국전체 GDP의 8%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개혁개방이전수준까지 회복시키는 것임. 이를 위해 2003년 10월 1차로 총 100개의 프로젝트에 610억위안을 투입하고 2004년도에는 197개 프로젝트를 선정, 집중투자하여 육성한다는 것임.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동북진흥은행을 설립하고, 증치세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지원대책이 마련됨.

- 중국의 동북진흥은 낙후된 동북지역의 경제부흥을 위해 중국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일련의 경제재건계획이나 중국이 북한을 영향권안으로 넣겠다는 전제하에 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의도로 인식됨
  
- 동북아지역 경제블록화에 대비한 예비책 의심
  - 대내적으로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완성을 위해서도 동북 3 성의 진흥은 필요. 대외적으로는 북한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경제블록화의 헤게모니(두만강 UNDP 개발계획 포함)를 장악하려는 의도로 볼 여지도 있음
  
- 북한경제의 대동북-결국 중국- 의존도를 촉진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 동북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라 자원이 풍부한 북한이 중국의 원료 공급 기지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완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시장으로의 역할을 하게 되어 불균형한 무역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증가
  - 이는 위협론의 시발점이 되는 2000년도를 전후한 북중간의 철광석 및 철강제품의 무역 실사례를 조사해 볼때 우려가 현실로 실제화되는 것을 확인할수 있음. 비단 철광석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품목에서도 이런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위협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요 논리임

## 1998~2005년 기간 북한의 대중국 철강관련 수출입 추이

(단위: 천달러)



(자료원 : KIEP)

\*위의 그림은 북한의 철광석수출과 철강제품수입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한 그래프로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저조한 수출을 보이던 철광석수출이 2003년부터 갑자기 급증하면서 동시에 철강제품수입도 급증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2003년이라면 중국의 대북진출이 본격화되던 해이며 동시에 동북진흥도 본 궤도에 올라서던 해이다. 저부가가치의 철광원석이 중국에 수출되고 이것이 가공되어 완성품(고부가가치제품)의 형태로 북한으로 수입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충분히 중국의 위협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 Ⅲ 중국의 대북 위협론에 대한 실체 논의

#### 1. 배경과 원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

□ 북중간 경제적 밀월은 정치적 문제, 정치적 문제 해결시 자연스레 해결

○ 북중간 경제적 밀착도 증가는 중국의 의도라기 보다는 북한에 대한 미일의 경제봉쇄로 인해 자연스레 형성된 것이므로 경제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 따라서 애초부터 정치적 문제해결시 해결 될 수 있는 단서를 갖고 있음

○ 현안이 해결되어 북한의 교역대상국이 다양화 될 경우 자연스레 해소될 전망

- 북미, 북일간에 현안사항으로 놓여있는 핵문제와 납치문제등이 해결의 돌파구를 찾아, 양국가들과의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특히, 경제적 문제는 남북간의 경협이 보다 자유로워진다면 금방 한국과의 교역증가로 인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의 대북투자증가는 중국과 북한의 정책변화 때문

○ 중국의 走出去정책, 2002년부터 시작

- 중국의 외화보유 증가로 국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 국제적으로는 원화절상 요구 증대

- 이에 따라 중국의 외자유치정책에서 走出去정책이 추가, 해외투자 장려

○ 북한의 정책변화

- 북한도 2002. 7. 1일 경제개혁조치를 취해 보다 적극적인 개방정책 실시
- 지리적으로 가깝고, 정서적으로도 북한에 대해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중국업체들을 상대로 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북한 스스로 중국업체 유치를 위해 노력

○ 의도라기 보다는 양국간 정책의 일치로 짧은 기간에 많은 중국기업들의 대북투자가 증대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는 것이 옳은 시각

□ 우려하는 광물자원 투자도 다른 나라와 비교, 특이하지 않아

○ 북한의 개방정책은 중국만이 아닌 전세계를 향한 개방의지의 표현

- 2002년이후 중국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싱가포르등도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 시작
- 광물자원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투자는 북한전체의 정책 실패나 취약성에 대한 설명은 될 수 있어도 이처럼 중국과 같이 어떤 특정국가와의 관계 설명사료로는 부적절

○ 전체적인 투자현황을 볼때, 이를 우려의 증거로 보기엔 지나친 비약

- 중국의 대북한 투자도 전체의 40%이하로 일부일뿐 위협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중국이 북한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중국기업들이 느끼는 투자위험도가 낮은 상황에서 이 정도의 투자점유율은 그리 심각하다고 볼수는 없음

## 북한광물자원에 대한 각국별 투자건수

(단위 ; 건)

투자국	투자건수	투자국	투자건수
영국	1	일본	3
독일	2	오스트리아	1
싱가폴	1	중국	5
스웨덴	1	전체	13

\* 자료원 : 코트라 해외무역관 보고 종합 및 광업진흥공사 자료 참고

\* 중국투자건수에서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인용 정보원의 차이에서 비롯

## 2. 시기적인 문제와 진행과정 확인 미흡

□ 실제 투자 여부와 그 성과 측정은 아직 미흡

○ 실제 투자여부 조사결과 30%정도는 투자유보 및 취소로 위협론 대두  
 싹점과 비교, 상황변동이 심함

- 25개기업중 명단이 확인된 23개 기업을 조사해 본 결과 실제 생산에  
 기업은 10개사에 불과. 회사 확인이 안 되거나 확실히 투자를 포기한  
 업체가 전체의 30%가 넘는 8개사
- 나머지는 투자는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협상진행과정에서 이견으로 협상을 중단한 사례들로 조사됨
- 아시아 최대의 노천 광산으로 중국기업들의 북한자원 선점의 대표적  
 사례로서 선전되어 온 무산철광산도 이윤분배문제로 북측이 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짐

### 《 중국의 對北투자 현황 》

순서	분야	규모	협정 (보도)시기	중국측 투자자	북한측투자자	현재진행 현황
1	컴퓨터	130만불	2003. 9월	남경팬더전자집단유한공사	대동강계산기 합영회사	생산중
2	슬레이트	미상	2003. 11월 연합뉴스	길림성방직수출입공사, 장춘영초과학주식유한회사	-	생산중

3	소비재	미상	2005. 3월 연합뉴스	지린식용유수출입 회사	평양담배종이제조공 장	2006.3월 생산시작
4	트렉터	미상	2004. 7월 <a href="http://www.koreancncc.com">www.koreancncc.com</a>	하남성 중국일타집단,	조선금성트렉트	투자안함
5	무연탄, 플라스틱	1,170만불	2004. 8월 연합뉴스	북건설 무역사절단 방북 , 합작상담 진행중	-	사실과 다름
6	백화점 운영	600만불	2004. 8월 KOTRA	선양 中旭集團	평양 제1백화점	중단.투자포 기
7	황금채굴 및 제련	미상	2004. 9월 濟南日報	초원산동국대황금구분 유한공사	대외경제추진위원회	미확인
8	담배, 의류, 무역	2,000만불	2004. 11월 KOTRA	길림성내 대북 투자기업 9개사	-	미확인
9	운송	8,500만불	2004. 11월 연합뉴스	원저우낙청성금폐속기차 복무유한공사	조선올림운수합영 회사	진행중
10	동광 개발	2,680만불	2005. 1월 연합뉴스	창바이자오진광업유한공사	-	진행중
11	항구개발	인민폐 800억원	2005. 9월 경제참고보	훈춘시 등린무역공사, 훈춘국경경제협력지구	북한 라선시 인민위원회	진행중
12	자전거	65만불	2005. 10월	천진디지털무역유한책임공사	조선대외경제합작 촉진위원회	생산중
13	탄광개발	미상	2005. 10월 길림신문	중국 오광집단		시작단계, 협상시작도 안함.
14	발전소	2억불	2004. 4월 香港商報	廣東華夏環保生態科學有限公司	조선경제개발총공사	회사파산 ,확인불능
15	페인트	미상	2000. 7월 KOTRA	天津燈塔塗料股份有限公司	평양지성명심합자회사	진행중
16	광천수 생산	494만불	2000. 12월 KOTRA	우림경제무역유한공사	조선두만강무역회사	미확인
17	극세아연 분말생산	미상	2005. 12월 길림일보	지린시 大成경제무역유한회사	북한직업 총동맹 산하 文水회사	투자완료, 판로문제로 생산 미시작
18	백화점운 영	미상	2005. 8월 동방정보	저장성 東陽國匯무역유한공사	평양제1백화점	진행중
19	철도운송	인민폐 3천만원	2005. 11월 후룡강신문	홍콩국제산업발전유한공사, 선양철도국, 단동철도역 단동철도국제연합운수총공사	북한철도성	협의중
20	철광광산 개발	인민폐 70억원	2005. 11월	통화철강그룹,延邊天池공사, 中鋼그룹	-	북한측에서 중단 요청

21	몰리브덴 광산	201만	2006. 8월 동아일보	林寶광산개발유한공사 (하북성 진황도시)		검토중이나 아직 미결정
22	몰리브덴 광산	미상	상동	廣壽그룹유한공사 (저장성 온주시)		생산개시
23	생수	미상	상동	杭州와하하집단		와전, 대북투자계 획없음

- \* 진행중 : 투자가 거의 확정된 단계 혹은 시험가동중이며 정식생산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
- \* 협의중 : 투자의사는 있으나 아직 투자결정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당성 검토중인 상태

○ 아직은 투자초기 단계로 그 위협성을 논할 단계로는 시기상조

- 한국기업들이 초창기 중국 진출시 법규미비, 정부의 간섭, 애초 약속했던 우대조항의 미준수등으로 애로를 겪다 철수한 사례가 있었듯이 북한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큼
-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직 생산초기단계에 있음을 감안해 볼때 시장상황 혹은 북한당국의 정책변화에 따라 얼마나 더 많은 기업들이 생산을 중단 할지는 아직 예단키 어려움

□ 관계변화에 따라 일시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는 사실 간과

- 현재 발생하는 현상은 불과 2~3년사이에 일어난 현상으로 그 상관관계, 주변관계등을 조사해 보면 어느정도 이해되는 상황임
  - 중국의 정책과 북한의 정책변화에 기인되어 나타난 상황
- 다양한 경제적 파트너 접촉을 방해하고 있는 정치적 상황 해소시 쉽게 해결될수 있는 요소로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도 높음을 고려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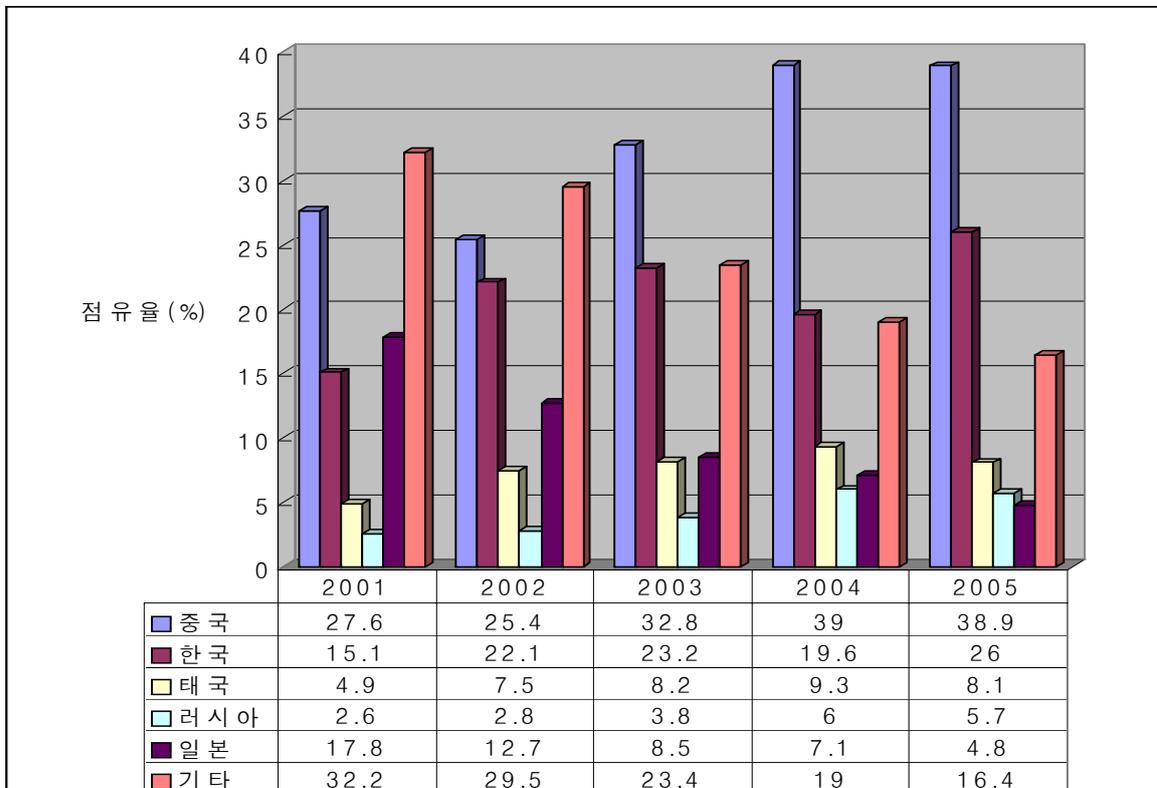
### 3. 심리적인 요인

□ 중국의 영향력 증대도 다소 과장되게 인식

- 중국의 점유율이 비대칭적으로 과대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수치화된 자료들을 비교해 그 맥락을 조사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수 있는 수준
  - 아래표에서 보듯 중국의 점유율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그에 맞추어 남북간의 교역이 정비례로 증대되면서 균형을 맞추고 있음
  - 2001년과 2005년의 북한의 대중, 대일무역을 비교해보면 일본과의 교역에서 줄어든 물량만큼 대중무역에서 늘어난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일본과의 교역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등 현안 미해결에 따른 경제조치 영향으로 본다면 현안해결시 금방 이전수준으로 회복 가능성도 큼

북한의 주요무역상대국들의 전체북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 자료원 : KOTRA 2005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다는 통계는 남북간의 교역을 내부거래로 간주, 제외했을때의 수치로 실제로는 40%이하 수준 낮은 수치는 아니나 북중간의 지리적 근접성, 중국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른 일반 무역업자들의 북한을 보는 위험도, 미국과 일본의 경제교류제한에 따른 불가피한 북한의 선택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보면 이 한가지 요인만으로는 위협론으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따름

□ 교역측면에서 위협을 느낀다면 같은 기준으로 북한의 대중투자도 고려 필요

- 중국측 발표에 따를 경우 2005.3월말 기준 178개사의 북한기업이 대중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남
  - 2002년이전까지 138개사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에도 40개사 신규투자가 이루어짐. 금액과 투자항목을 서로 비교해보면 호혜의 관점에서 교류가 이루어진 반증으로 볼수 있음
  - 품목, 금액측면에서 직접적 비교는 큰 의미가 없을수 있으나 이 자료를 통해 투자교류는 북중간에 있어온 평범한 교류로 평가할수 있음

### 북한기업의 대중투자 현황

(단위:개사)

구분	2001년이전	2002.2~2004.10	2004.11~2005.3	합계
독자기업	49	16	10	75
중외합자	89	6	8	103
합계	138	22	18	178

\* 자료원 : 朝鮮在華名錄

□ 꼭 불리하게만 해석할 이유가 없는 동북진흥

- 경제적 밀접도 증가를 예속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름
  - 동북진흥은 북한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윈윈전략으로 볼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음

- 북한에서 소비되는 소비재의 80%가 중국산이라고 우려를 하는데, 이를 양적인 차원과 점유율에서 보면 분명 우려할 만한 사안이지만 현재 한국이 추진하는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을 겨냥한 값싸고 질좋은 경공업 제품이 생산된다면 중국에서 수입되는 소비재 제품은 바로 밀려 날 것으로 전망
- 산업 원천기술없는 단순자본 투자와 소비재 투여만으로는 다른나라 경제를 예측시킨다는 것은 불가능. 단순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예측화를 논한다면 북한은 이미 90년대 이전에 소련에 예측 되었던 것으로 평가가능.<sup>5)</sup>

□ 동북공정등 기타

- 기타로는 중국의 전통적인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 노력이나 최근 논란이 많았던 동북공정등 여러 가지를 들수 있음.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정치적인 논쟁이 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여기서는 논의 제외

---

5) 정형곤 대외경제협력 연구원 연구위원, 2006년 6월 조선일보 인터뷰기사

## V. 결론 - 경제적 관점에서 본 위협론

- 상당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함으로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볼수 있음
  - 위협론의 발아가 되었던 북중간의 경제적 특이점은 그야말로 어느덧점에, 어떤 특수한 외부환경에 의해 발생한 특이점으로 이해됨
    - 2002년부터 시작된 북중간의 교역급증은 북한내의 정책변화와 이에 따른 개방진행, 일본과의 교역침체가 북중간의 교역증대로의 대체, 중국의 走出去정책 실시등의 영향으로 야기
    - 교역증대가 2002년을 기점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아직까지는 예의주시가 필요한 상황이며, 일시적 현상으로 그칠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지속 될지는 주변 정치적 환경의 변동에 영향받음으로 쉽게 결론내기 어려움.
  - 정치적 이해가 개입되지 않고 경제적 관점으로만 볼때 다소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임
    - 북중간의 경제적 밀접도 증가와 같은 특이 현상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한 이해부족이 위협론을 발아, 확대시킨 것으로 보여짐
    - 위협론의 근거가 되는 경제적 의존도 증가를 2002년부터로 본다면 시기상 위협으로 결론내리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는 점과 경제적 문제가 정치적 문제에서 야기된 특수상황이라는 점을 근거로 볼 때는 정치적 문제 해결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협으로 결론 내리기에는 다소 무리
- 바람직한 해결방안 모색
  - 위협론은 논의과정에서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동북공정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가 실제 위협론의 근본이유인 것처럼 변환되었다는 것이 문제해결에 장애로 작용. 위협론의 원인중 하나에 불과한 동북공정은 민족감정과 같은 심리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한중간의 관계를 급격히 악화시킬 위협요인의 요소를 갖추고 있음.

□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

- 장기적으로는 논쟁의 소지가 있을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볼때는 현재의 북중간 교역증대는 북한경제의 탈출구 역할을 함으로서 북한과 중국 양국에 모두 이득이 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북한에 자본주의 교육도 시키는 순기능 측면도 있음을 고려해야 함
- 북한의 연착륙에 중국이 역할을 할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도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야 말로 위협론을 극복하는 밑바탕이 될것으로 사료